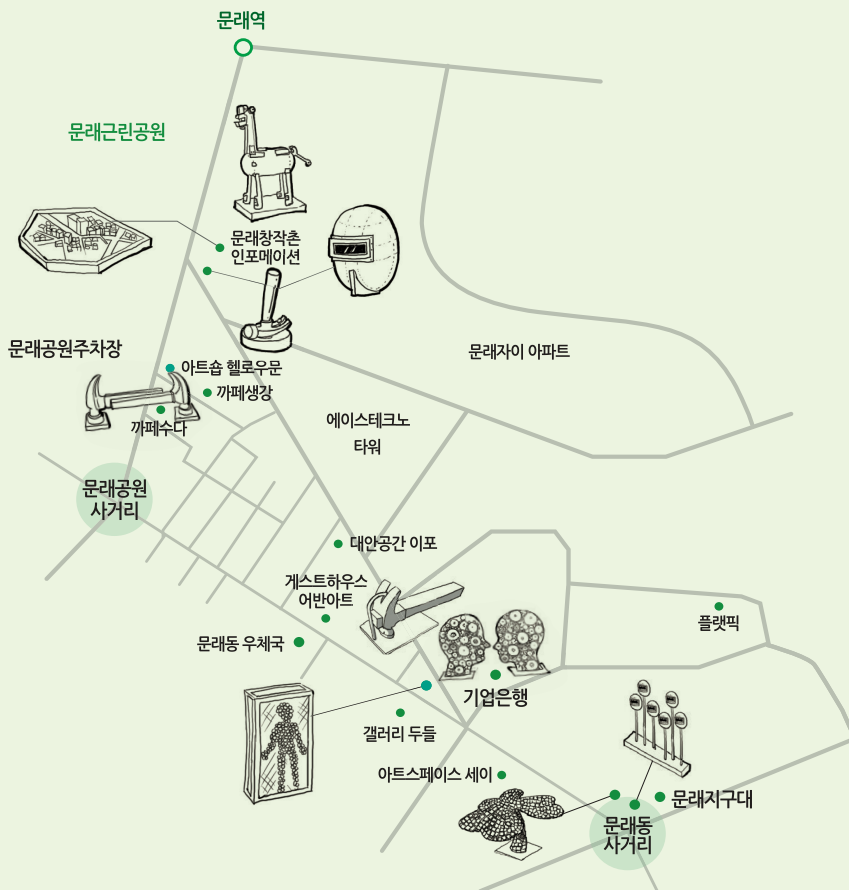




문래창작촌

문래창작촌은 중소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3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형성된 예술작업실 마을이다. 2000년대 들어 공장 이전 정책과 재개발로 단지 안 업체들이 옮겨가자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알음알음 찾아와 비어 있는 철공소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회화, 설치, 조각,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영상, 서예, 영화, 패션, 애니메이션 등의 시각예술 장르를 비롯해 춤, 연극 마임, 거리 퍼포먼스, 전통예술, 음악 등의 공연예술가와 비평, 문화기획, 시나리오,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가들이 작업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로
나오세요

문래창작촌 방문 주의사항

- 문래동은 관광지가 아닌 많은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일터이다.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진촬영도 허락후에 한다.
- 작업실과 사무실은 사적인 공간이니 방문객의 예의를 갖추어 접근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구 가이드북〉



나도 역사해설가

문래동은 일제강점기 때 사옥정(絲屋町)이라 불렀는데, 경성방직을 필두로 한 면직물 공장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옛날엔 이 일대가 안양천과 도림천의 우안(右岸)으로 모래가 많은 마을이라고 하여 '모랫말'(사천리)이라 불렀다. 문래동(文來洞)의 유래는 모랫말에서 음차했다는 설이 정설로 여겨진다. 일설에는 최초로 면화를 도입한 '문익점'의 아들로 물레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는 '문래'에서 따와 해방 이후에 개칭되었다는 설과,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 대규모 방직공장이 세워지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방직기의 순우리말인 '물레'를 음차한 '문래'로 개칭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간 어원으로 비슷한 발음에서 유추,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중에는 문래동 4가 지역을 '오백채'라는 말로 회고하는 분들도 있다. 1940년대 일본인들이 방직공장 종사원을 위한 주택을 오백채 가량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영등포구 문래역 7번 출구에서 나가 걸어가다 보면 '문래창작촌'이라는 팻말과 함께 문래창작촌의 아이덴티티인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낮에는 철공소가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가득해서 불편한 소음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상점들의 조명이 켜지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낮과 밤 둘 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문래동이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원래 문래동은 6.25 전쟁이후 생겨난 소규모 철재공장이 밀집했던 곳으로 밤낮으로 기계음과 용접 냄새로 정신없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IMF 이후 철강업체들은 급격하게 줄었고, 재개발에 의해 아파트 단지와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철공단지 변화가 시작됐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근처 홍대와 합정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젊은 예술인들이 밀집하기 시작했고 철공소와 예술촌이 공존하게 된다.

문래창작촌은 철공소와 예술촌이 공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아날로그 감성을 찾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장소가 됐다.

여담

- 과거에는 수도군단의 전신인 제6관구사령부가 주둔했었다. 현재는 그 자리가 문래근린공원이 되었다.
- 코미디언 겸 영화인 심형래가 문래동 출신이다.
-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한국 촬영지 중 하나였지만, 의외로 이곳이 촬영지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극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스칼렛 위치, 퀵실버가 멈추지 않는 한국 지하철을 정지시키는 장소로 등장한다.

〈출처: 나무위키〉